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1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037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13일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강기정 "변화와 도전 계속"…김영록 "미래 100년 다질 것"

광주·전남 시도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새로운 도약 다짐

◇광주시=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민선 8기 1년은 '변화'와 '도전'으로 채워진 8760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은 광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취임 1년 기자회견을 하고 "신경제지도, 돌봄 민주국가, 도시연합, 기후 위기 극복과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회복력 도시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강 시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빛그린 산단), 반도체와 인공지능(첨단 3지구), 배터리와 에너지(도시첨단산단), 콘텐츠 밸리(송암 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 지도의 거점으로 소개했다.

강 시장은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들어 시작한 (통합)돌봄은 복지정책이자, 민주주의 그 자체"라면서 "가족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확장된 광주 정신의 철학에서 출발한 통합돌봄을 대한민국 대표 돌봄 모델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강 시장은 광주 인근 5개 자치단체와의 연합을 주축으로 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강 시장은 "더 많은 도시와 연합하고 협력하는 길만이 지방소멸을 막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영산강 벨트 도시들과 함께 생활·문화·관광 초광역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특별자치단체 설립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과는 반도체·인공지능을, 나주·영광과는 에너지를, 함평과는 미래 모빌리티를, 화순·장성과는 의료·바이오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강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자평했다. 강 시장은 "지난 1년간 어등산 관광단지, 복합쇼핑몰,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지산 나들목 활용, 백운광장 지하차도 등 5개 묵은 현안에 최대 난제로 꼽힌 군 공항 이전까지 이른바 '5+1 현안'의 실타래를 풀어냈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통폐합 등 행정의 변화, 다양한 계층 시민과의 소통 시스템 정착, 인공지능과 미래 차를 양 날개로 한 9대 대표 산업 도약, AI인재양상 사다리 구축, '꿀잼 광주' 변신, 광주다움 통합돌봄·24시 어린이 안심 병원·농민 수당 지급 등 광주 곳곳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김영록 전남지사가 29일 취임 1년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지난 1년이 '전남 미래 100년, 희망의 주춧돌'을 놓는 시기였다면 남은 기간 "차원 높은 비전과 전략, 실행력을 갖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29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글로벌 대전환 시대와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전남을 향해 글로벌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7대 역점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김 지사는 '최첨단 전략산업'을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며 "1조 6000억원 규모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우수발사체 특화 국가산단을 조속히 조성, 민간 우주기업들이 전남으로 모여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유치,순천·광양 일대 579만㎡(180만평) 규모의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글로벌 첨단바이오산업 허브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피력했다.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 전남'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지사는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힘을 모으겠다"면서 "풍력과 태양광이 풍부한 전남에 재생에너지 전용산단을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와 세계적 IT 기업이 몰려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해안 프로젝트'와 'SOC 르네상스 시즌 2'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부 주도의 중단없는 남해안 개발을 위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SOC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목포까지 광역 관광권으로 연결해 서남권 경제·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목포-무안 전남형 트램' 건설,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 무안 이전과 연계한 항공특화산단 조성을 통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 트라이앵글 순환 철도망' 구축 등 '전남 SOC 르네상스 시즌 2' 구상도 밝혔다.

김 지사는 아울러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국립의과대학의 전남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 AI 농생명밸리, AI 축산밸리 조성을 통한 미래 AI 생명산업 육성 계획과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전남형 인구 프로젝트'도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하늘 뚫렸나…광주·전남 오늘까지 폭우 2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이면도로에서 한 시민이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기 위해 황급히 움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임 통일장관 김영호·권익위원장 김홍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국민권익위원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김영호

김홍일

29일 지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월부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신(新)통일미래구상'(가칭) 밑그림을 그려온 국제정치 전문가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82년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6·25 전쟁 연구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 후반까지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인 '도서출판 녹두'의 대표로서 소련 공산주의 철학서와 안토니오 그람시 번역서 등을 펴낸 좌파 지식인이었다.

'불온' 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1987년 항쟁 와중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개월간 옥살이도 했다. 이어 2011년 이명박 정부의 통일비서관으로 발탁됐고, 2012~2013년엔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냈다.

김홍일(67·사법연수원 15기)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표적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박한상씨 존속 살해, 지존파 납치·살해 사건, 영생교 신도 암매장 사건,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제이유 그룹 로비 사건 등 굵직한 특수·강력 사건을 처리했다. '강력사건 현장수사론'이라는 책도 썼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찰 재직 당시 업무처리가 빈틈이 없고, 호탕한 성품으로 통솔력과 인화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와함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를 발탁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일 8년만에 통화스와프 복원…100억 달러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8년 만에 복원됐다.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진행된다.

달러화 기반이라는 점에서는 간접적인 '한미 통화스와프' 성격도 깔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제8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하고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지난 2001년 20억 달러로 시작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됐다.

당시의 100억 달러 규모를 준용했지만, 통화교환 방식은 달러화 베이스로 업그레이드됐다. 우리가 원화를 맡기면서 일본 측에서 보유한 달러화를 차입하고, 역으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 /연합뉴스

한빛원전 수명 연장 추진 지역민 반발 ▶6면
광주일보 10기 2차 독자위원회의 ▶9면
KIA 주먹구구 운영에 마운드 붕괴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의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3(도심: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 471, 공차중량(kg) : 2355,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